

## 【P-39】

**패밀리레스토랑업계의 조직문화 유형 규명 : 이상과 현실의 괴리**이해영 · 양일선<sup>1)</sup>*연세대학교 식품영양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sup>1)</sup>*

개방화 및 세계화, 고객 욕구의 다양화, 기술혁신의 가속화,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는 새로운 틀의 조직과 경영관리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적절한 조직문화의 창출과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면서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Quinn의 경쟁가치 모형(Competing Values Framework: CVF)을 기초로 하여 외식산업의 성격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외식업체 대상 조직문화 유형 판정 도구를 개발하고, 이 도구를 이용하여 국내 패밀리레스토랑업체 조직문화의 현재 유형과 조직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유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국내 외식업체의 조직문화 유형 판정을 위한 분석 도구로 조사 대상 업체의 조직 문화 유형을 도출한 결과, 현재 패밀리레스토랑업계의 조직문화는 '관계지향적', '위계지향적', '합리지향적' 유형이 '개방지향적' 유형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상적인 조직문화 유형에 대해서는 4가지 각 유형 모두 현재 상태보다 좀더 강한 정도의 조직문화 성격을 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지하였으며, 특히 '관계지향적'이며 '개방지향적'인 유형을 기대하고 있었다. 현재 조직문화와 이상적 조직문화간의 괴리는 4가지 유형 모두 유의적인 차이( $p < .001$ )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세부 속성인 '주요 특성', '리더십', '유대관계', '조직풍토', '성공 척도', '관리스타일'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차이 분석 결과, '주요 특성'을 제외한 5가지 속성 모두 현재 유형보다는 이상적인 유형이 더 강해지길 기대하는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p < .001$ ) 분석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특성' 측면에서 현재 조직문화 유형은 '관계지향적'인 면이 강하면서 이상적으로는 '관계지향적'이고 '개방지향적'인 유형을 기대하였고, '리더십' 측면에서는 '합리지향적'인 유형이 강하였으며, 앞으로는 좀더 '개방지향적', '합리지향적', '관계지향적'인 리더십을 원하고 있었다. '유대관계' 측면에서는 현재 '합리지향적'인 면이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부족하였고, 현재보다 4가지 측면 모두 다소 강한 수준의 문화 유형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밀리레스토랑업체는 현재 '위계지향적'인 측면이 강하면서 '개방지향적'인 측면은 약한 '조직풍토'를 공유하고 있고, 향후 '관계지향적'이며 '위계지향적'인 풍토를 기대하고 있었다. '성공 척도'는 4가지 유형 모두 균형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상적으로는 현재보다 '관계지향적'이고 '개방지향적'인 면이 더 강조되길 바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리스타일' 측면에서는 현재 조직문화가 '관계지향적'이며 '합리지향적'인 면이 강하였으나, 이상적인 관리스타일은 '관계지향적'이고 '개방지향적'인 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패밀리레스토랑업체는 조직구성원들이 이상적이라고 기대하는 조직문화유형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진단된 현재 조직문화와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조직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하고 헌신하며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바람직한 조직관리 방법이라 사료된다.

## 【P-40】

**위탁급식회사의 운영지표 및 비용생산성 분석**조선경<sup>1)</sup> · 양일선<sup>1)</sup> · 차진아<sup>2)</sup> · 박문경<sup>1)</sup>*(주) 현대 지-네트 운영지원팀,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sup>1)</sup>, 전주대학교 전통음식문화전공<sup>2)</sup>*

최근 국내 급식산업은 급식규모의 대형화, 위탁급식 전문회사의 등장과 같은 급식산업 내부 환경 변화와 함께 국내의 전반적인 산업 발전으로 인한 인건비 및 제비용의 상승, 노동력 부족 현상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력을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위탁급식 전문회사의 138개 급식점을 대상으로 회사 내 인트라넷인 FS 전산 system으로부터 회사 전반의 영업 현황을 파악하여 운영지표 및 비용생산성을 분석하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SAS package (ver.8.01)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ANOVA, tukey multiple comparison, 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급식점의 유형은 산업체(45%), 소형점(26%), 오피스(11%), 백화점(10%), 연수원(4%), 병원(3%)으로 나타났고, 식수 규모에 따라 500식 미만(47%), 500~1500식 미만(25%), 1500~2500식 미만(17%), 2500식 이상(12%)으로서 대면배식(44%) 형태가 가장 많았다. 계약형태는 관리비제(53%), 식단가제(46%)의 두가지 형태로, 계약 식단가는 평균 2660원, 식재료비는 평균 1626원이었고, 각 급식점 평균 인력 현황은 관리자 0.1명, 영양사 1.3명, 조리사 1.3명, 조리원 14.3명으로써 총 15.8명이었다. 월 매출액 중 인건비 및 식재료비 비율은 각각 25%와 62%였으며, 1식당 급료는 662.1원 1식당 인건비는 738.0원 이었다. 급식점 유형별 식수는 산업체 급식점이 평균 식수(1,610식) 및 월평균 매출액(1억 8000천원)이 가장 높았고, 소형점이 120식과 9940천원으로 가장 낮은 범위를 나타내었다( $p < .001$ ). 평균 끼니수는 병원 4.0끼니부터 소형점 2.1끼니의 범위였고( $p < .001$ ), 평균 계약 식단가는 소형점(3081원)이 가장 높았으며( $p < .01$ ), 이 중 연수원이 1958원으로 식재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1식당 급료는 소형점이 97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피스 605.4원, 산업체 576.9원, 연수원 517.0원, 백화점이 430.3원, 병원(직원식)이 311.3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p < .001$ ). 급식운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1식당 급료는 계약 식단가와 인건비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p < .001$ ) 순수익( $p < .01$ ), 급식 인력 1인당 매출( $p < .001$ )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1식당 인건비는 계약식단가, 찬수, 평균시급, 인건비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p < .001$ ), 순수익( $p < .01$ ) 및 급식 인력 1인당 매출( $p < .001$ )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소형 급식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각 급식점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비용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월 매출액과 순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델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P-41】

### 보건소 모자영양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요구도 조사

유현주\* · 이숙영 · 남희정 · 박혜련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본 연구는 임신부와 이유기 어린이를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소 모자영양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여 '임신부 교실'과 '이유기교실'을 위한 영양교육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2002년 7월부터 9월까지 영양사가 배치된 3개 보건소와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고 모자보건 선도사업을 수행 중인 3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총 690부를 수거하여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도구에 포함된 내용은 focus group interview와 사전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고 연간 보건소 이용횟수, 자녀수, 모자보건 영양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정도, 서비스의 만족도, 접근성, 소주제별 모자영양서비스 교육 요구도, 교육자료의 종류, 적절한 교육시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10대 0.1%, 20대 40.0%, 30대 47.2%, 40대 1.6%로 30대의 비율이 높았고 교육정도는 중졸 1.6%, 고졸 50.6%, 대졸 44.4%, 대학원졸 2.9%으로 고졸이상의 학력자가 97.9%였다. 자녀수는 첫아기 임신중이 7.4%, 1명 41.0%, 2명 40.4%, 3명 이상 10.2%로 나타났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4.9%, 101~200만원 49.6%, 201~300만원 25.5%, 301만원 이상 8.4%로 소득계층이 골고루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보건소 이용횟수는 3회 이하 43.9%, 4~6회 33.5%, 7~10회 12.4%, 10회 이상 10.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모자영양서비스에 관하여 29.2%가 알고 있었으며 영양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22.4%로 조사되어 영양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못함" 7.5%, "별로 만족하지 못함" 1.9%, "다소 만족함" 21.7%, "많이 만족함" 52.8%, "아주 많이 만족함" 16.0%로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9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서비스 접근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불만족 0.1%, 소요시간 1.9%, 거리 6.4%, 홍보부족 73.5%, 바빠서 4.1%로 영양서비스에 관한 홍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각 주제별 영양서비스는 영유아 성장에 따른 영양관리가 가장 높았고 임신중 영양관리, 모유수유의 방법과 장점, 임신관련 질병 영양관리 순이었다. 원하는 영양서비스 자료 형태는 소책자 26.7%, 강의 14.7%, 인터넷 14.0%, 상담 12.2%, 전화상담 10.8%, 1대1 방문서비스 10.3%, 비디오 8.2%, CD 2.0%순으로 나타났고 적당한 교육시간은 30분 31.8%, 60분 59.5%, 80분 5.6%, 120분 2.4%로 60분 정도

가 적당하다고 조사되었다. 교학력일수록 임신 중 질병( $p < 0.05$ )과 모유방법( $p < 0.05$ )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고 젊을수록 구체적인 소주제별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p < 0.05$ ).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 $p < 0.05$ ), 젊을수록( $p < 0.01$ ) 짧은 교육시간을 선호했다.

본 연구는 2002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 【P-42】

###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의 아연 영양상태와 유병기간 및 당뇨조절과의 관련성

윤진숙 · 이정희 · 윤지영 · 이희자 · 이인규<sup>1)</sup>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sup>1)</sup>

최근 발생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인슐린비의존형 당뇨병은 균형된 식생활이 혈당조절, 당뇨 합병증 예방과 지연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기능과 항산화 효소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연의 적정 섭취가 당뇨병 관리에 관련되는 바를 알아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의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 80명과 정상인 80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을 실시하고, 24시간 회상법으로 1일 식사섭취량을 조사하였다. 공복시 혈액을 채취하여 혈장아연농도를 측정하고 소변의 아연배설량을 측정하였다. 제 2 형 당뇨병 환자의 평균 연령은  $57.3 \pm 7.9$ 세, 에너지 섭취량은 남자  $1820.5 \pm 371.6$  kcal, 여자  $1570.6 \pm 462.4$  kcal이었으며, 단백질 섭취량은 남자  $71.0 \pm 19.7$  g, 여자  $58.1 \pm 20.1$  g이었다. 대조군과의 비교에서는 섭취빈도법에 의해 산출된 일일 아연 섭취량, 그리고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산출된 아연 섭취량 상태 등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연 권장량에 대한 비율(%RDA)은 당뇨군보다 대조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p < 0.01$ ). 혈중 아연농도는 당뇨병 환자군과 대조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소변 중 아연 배설량( $p < 0.001$ )은 당뇨병 환자군이 대조군의 약 2배에 달하였다. 당뇨병환자들의 혈장 아연 분포는 정상이하가 19.5%, 정상범위( $74 \sim 130 \mu\text{g/dl}$ )가 77.9%, 정상이상인 2.6%였다. 결핍상태에 있는 당뇨병환자는 대조군 10.8%의 약 2배에 달하였다. 혈장 아연 농도 범위에 따라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소변 중 아연 배설량만이 대조군보다 환자군이 높게 나타났다( $p < 0.05$ ,  $p < 0.001$ ). 당뇨병군은 대조군에 비해 아연의 %RDA 섭취량이 낮고 소변의 배설량은 더 많았으나, 혈장의 아연농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유병 기간은 평균  $8.7 \pm 6.4$ 년이었으며, 5년 이내의 환자가 34.3%정도였다. 유병기간을 5년차 등급별로 분류하고, 소변의 아연 배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장 질환자를 보정하여 아연상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혈장 아연 농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변의 아연 배설량/creatinine은 유병기간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유병기간 20~24년군이 가장 높았고, 10~14년군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당화혈색소(HbA1c) 수준을 정상 내지 양호한 범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의 비율은 82%였고, 당화혈색소의 정상범위, 양호, 보통, 그리고 불량상태의 등급에 따른 혈중 아연 농도는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변의 아연 배설량/creatinine은 당화혈색소의 등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 $p < 0.001$ )를 나타내었다. 즉 평상시 혈당조절이 잘 안 될수록 소변의 아연 배설량은 높게 나타났다. 공복혈당의 정상범위( $< 90 \text{ mg/dl}$ ), 양호( $90 \sim 125 \text{ mg/dl}$ ), 불량상태( $> 125 \text{ mg/dl}$ ) 등급별 아연 영양상태 지표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소변의 아연 배설량/creatinine은 당화 혈색소 및 공복혈당, 인슐린 저항성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 $r = 0.63$ ,  $p < 0.001$ ,  $r = 0.38$ ,  $p < 0.01$ ,  $r = 0.43$ ,  $p < 0.01$ )을 나타내었다.

## 【P-43】

### 학동기 아동의 락시틴 영양소 섭취량과 체중지수, 혈청지질지표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손숙미 · 박희진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

학동기는 지속적인 체위의 향상과 제 2의 급속한 성장과 성숙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이 시기에 영양과다로 인해 건강에 장애가 오면 정서적, 지적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이 전후에 체위와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4, 5학년 학동기 아동 1500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하여 WLI (Weight Length

Index)  $\geq 125$ 인 아동 104명(남자 69명, 여자 35명)을 비만군으로 하였으며, 비만아동과 나이, 환경을 match시킨  $90 \leq WLI < 110$ 인 아동 72명을 정상군(남자 41명, 여자 3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식이섭취조사, 신체계측,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비만군은 정상군에 비해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콜레스테롤 (각  $p < 0.001$ )을 유의하게 많이 섭취했다. 아침과 점심식사에서는 두 군간의 영양섭취량에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저녁에서 비만군은 단백질, 동물성단백질(각  $p < 0.05$ ), 탄수화물( $p < 0.01$ )의 섭취량이 높았다. 간식에서는 비만군은 정상군에 비해 에너지 섭취량, 단백질, 동물성단백질, 식물성단백질, 탄수화물, 콜레스테롤 등의 섭취량이 높았으며( $p < 0.05 \sim 0.001$ ) 칼슘과( $p < 0.05$ ) 동물성칼슘( $p < 0.01$ )의 섭취량은 유의하게 낮았다. 24시간 recall로 측정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량은 대부분의 신체계측 지표(Fat%, WLI, PIBW, BMI)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의 섭취량과 신체계측 지표들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각  $p < 0.001$ ). 혈청 TG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에너지 섭취량과( $p < 0.05$ ) 탄수화물 섭취량이었으며( $p < 0.05$ ) Atherogenic index (AI: Total cholesterol HDL-C/HDL-C)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단백질( $p < 0.05$ ), 식물성단백질( $p < 0.01$ ), 탄수화물 섭취량 ( $p < 0.05$ )이었다. 저녁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 섭취량은 신체계측지표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 $p < 0.01$ ) 저녁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단백질, 동물성단백질, 탄수화물은 혈청 TG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 $p < 0.05 \sim p < 0.01$ ) 식물성단백질과 탄수화물은 AI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각  $p < 0.01$ ).

간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중 단백질, 동물성단백질, 식물성단백질은 모두 신체계측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p < 0.05 \sim p < 0.001$ ) 특히 식물성단백질과의 상관관계가 컸다. 간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량은 체지방량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 $p < 0.05$ )를 보였고 동물성지방과 칼슘의 섭취량은 PIBW, BMI와의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5$ ).

Logistic 회귀분석에서 에너지 섭취량이 2000 kcal 이상일때 비만이 될 위험률이 5.5배였으며 탄수화물 278 g 이상일 경우 비만이 될 위험률이 8.70배,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265 mg 이상일 때는 비만이 될 위험률이 2.4배였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59% 이상이면 비만이 될 위험률이 2.6배였으며 단백질을 26% 이상 섭취할 경우 비만 위험률이 2.7배였고 지방은 16% 이상 섭취할 경우 오히려 비만비율이 0.3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비만 위험률을 높이는 것은 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량이었다.

## 【P-44】

### 경남과 전북지역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터넷 식생활정보 이용실태

허은실 · 이경혜<sup>1</sup>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완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인프라구축정책, 인터넷을 이용한 기업의 고객접근전략, 그리고 언론의 정보화 운동과 함께 고조된 국민들의 인터넷 열기 등의 결과로, 2001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의 55.6%(약 24백만명)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이런 추세에 따라 대중들의 건강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양교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기에 앞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터넷과 식생활정보 이용현황과 사이트 개발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얻고자 실시되었다. 인터넷 이용현황, 인터넷 식생활정보와 영양상담 이용현황, 영양교육 사이트 개설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경상남도 와 전라북도 초등학교 고학년 1,000명을 대상으로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7일에 걸쳐 조사가 행해졌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수된 903부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이용률은 98.1%로 매우 높았고, '게임' (39.0%)과 '사교생활' (34.3%)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남학생은 '게임' (60.6%)을, 여학생은 '사교생활' (49.5%)을 꼽아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01$ ). 대부분 2시간 미만의 바람직한 이용시간(80.9%)을 가지고 있었고,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운동횟수가 적었고( $p < 0.05$ ), TV 시청시간은 길어지는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p < 0.05$ ). 인터넷 이용장소는 대부분 '집' (88.8%)이었고, 성별로는 여학생에서 다양한 이용장소를 보였다( $p < 0.05$ ). 자주 이용하는 검색엔진은 'Yahoo' (54.2%)와 'Daum' (31.1%)였고, 남학생은 'Yahoo' (60.5%)를, 여학생은 'Daum' (40.0%)을 선호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인터넷상의 식품영양 정보를 이용한 경험은 전체의 35.6%였다. 이용빈도는 '6개월에 1회 정

도'가 35.4%로 가장 높았고, '1달에 1회 이상' 이용하는 학생도 48.2%로 높았다. 식품영양 정보를 얻는 목적에는 '숙제를 위해서' (39.6%)와 '건강을 위해서' (36.9%)에 높은 비율을 보였고, 79.5%가 검색결과에 대해 만족하였다. 식품영양 정보에 접속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는 '검색엔진을 통해서'가 38.1%로 가장 높았고, '부모님의 추천' (18.4%), '관련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품영양 관련 사이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8.9%가 '흥미를 끌지 못한다'고 하였고, '어려운 내용' (19.2%), '빈약한 정보' (18.2%) 등을 들고 있었다. 인터넷으로 영양상담을 경험한 학생은 15.4%로 저조하였고, '숙제를 위해서' (51.4%)와 '건강문제로' (30.2%)라는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상담결과에 대해 느낀 점으로는 '답변내용이 어렵다' (31.7%), '답변이 느리다' (28.6%), '답변내용이 빈약하다' (25.4%)가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영양과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원으로는 '인터넷' (43.7%)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식품영양정보에 있어 '키 크는 법' (28.3%), '학습능력의 증가' (13.8%), '올바른 체중조절' (13.3%)과 '요리' (12.8%)순으로 관심을 나타내었다. 아동들은 대부분 적어도 3개월 이내의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원하고 있었다. 선호하는 교육방법으로는 '게임' (40.5%)이 가장 높았고, '애니메이션' (29.9%)과 '퀴즈' (18.1%)순이었다. 사이트 색상으로는 파란수 정도가 '파란색' (51.3%)을 뽑았고, 남학생은 한색계열을, 여학생은 난색계열을 좋아하였다. 좋아하는 캐릭터는 '엽기토키' (11.7%), '발렌타인' (10.6%), '졸라맨' (5.3%), '푸카' (5.3%)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매우 높았으나 식생활 관련정보 이용률은 저조하여 아동들이 지적인 식생활 사이트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이들의 식생활 관련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질 높은 교육사이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사이트 개발시 이들이 선호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매체, 색상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P-45]

### 경남과 전북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터넷 식생활정보 이용실태

허은실 · 이경혜\*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초등학생 시기가 자신의 식습관을 스스로 관리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 영양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최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증가함에 따라 식습관에도 관심이 많다고 생각되며, 이들 부모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자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양교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기에 앞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터넷과 식생활 정보 이용현황과 사이트 개발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얻고자 실시되었다. 인터넷 이용현황, 인터넷 식생활정보와 영양상담 이용현황, 자녀의 식생활 지도에 도움을 주는 사이트 개설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경상남도 와 전라북도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7일에 걸쳐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조사가 행해졌고 회수된 464부 중 완성도가 높은 436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인터넷 이용률은 전체의 81.2%로, '아버지' (94.0%) 이용률이 '어머니' (78.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p < 0.001$ ). 인터넷 이용목적은 '자료검색' (49.2%), '게임' (20.1%), '문화생활' (11.9), '사교생활' (11.6%)순이었다. 인터넷 이용횟수는 '일주일에 2~3일' (35.4%)이 가장 높았고,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인터넷 이용횟수를 보였다( $p < 0.05$ ). 인터넷 이용시간은 대부분이 2시간 미만의 바람직한 이용시간(85.9%)을 가지고 있었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의 90.6%였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된 장소도 역시 대부분 '집' (82.6%)이라고 하였다. 자주 이용하는 검색엔진으로는 'Yahoo' (65.8%)와 'Daum' (19.5%)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신뢰를 주는 인터넷 정보제공기관은 '교육기관' (40.1%), '관련 학회 및 단체' (15.6%), '언론기관' (13.1%), '개인 홈페이지' (12.8%), '정부기관' (10.7%) 순이었다. 학부모에서 인터넷 식생활정보의 이용경험은 전체의 51.7%였고, '어머니' (56.3%)에서 이용경험이 더 높았다( $p < 0.01$ ). 이용빈도는 대부분 '1달에 1회 이상' (73.5%) 이용하고 있었다. 식생활 정보의 검색목적은 주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68.6%)와 '자녀의 숙제를 위해서' (16.5%)였다. 그리고 전체의 79.6%가 검색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식생활 정보에 접속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는 '검색엔진을 통해서' (66.5%)가 가장 높았고, 현재 식생활 관련 사이트의 문제점으로 '빈약한 정보' (21.4%), '느린 업데이트' (15.5%), '느린 접속속도' (15.0%), '한 홈페이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룬다' (15.0%), '흥

미를 끌지 못한다' (14.4%)순으로 지적하였다. 영양과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원으로 '인터넷'은 14.0%로, 3위였고, 아동의 식생활 지도를 위해 '키 크는 식사' (23.1%), '올바른 체중조절' (22.3%), '편식교정' (14.0%)과 같은 식생활 정보를 필요로 하였다. 바람직한 업데이트 기간으로는 과반수 정도가 '1~3개월' (53.1%)이라고 하였고, '1개월 미만'도 24.4%로 높았다. 선호하는 사이트 색상으로는 '파란색' (39.6%)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의 인터넷 이용률과 식생활 정보 이용률은 비교적 높았으나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은 아직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식생활 지도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이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 [P-46]

### 경남과 전북지역 초등학교 영양사의 인터넷 식생활정보 이용실태

허은실 · 이정혜<sup>\*</sup>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초등학생 시기가 자신의 식습관을 스스로 관리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 영양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 영양전문가들도 인터넷을 영양업무 및 교육에 활발히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인터넷은 큰 가능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양교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기에 앞서 초등학교 영양사의 인터넷과 식생활정보 이용현황과 사이트 개발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인터넷 이용현황, 인터넷 식생활정보와 영양상담 이용현황, 영양교육 사이트 개설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초등학교 영양사를 대상으로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7일에 걸쳐 E-mail과 배포법을 이용하여 조사가 행해졌고, 회수된 201부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영양사의 연령은 주로 '30대' (70.1%), '5년 이상' (75.6%)의 경력, '4년대졸 이상' (71.1%)의 학력을 가졌고, 대부분 '정규직' (83.1%)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다. 모든 영양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고, 주로 '자료검색' (72.3%)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용횟수는 '일주일에 6~7일' (46.7%)로 매우 높았으며, 대부분이 2시간 미만의 바람직한 이용시간(68.5%)을 가졌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의 65.3%였고, 주된 이용장소로는 대부분이 '학교' (81.8%)라고 응답하였다. 자주 이용하는 검색엔진은 'Daum' (41.1%)과 'Yahoo' (34.7%)였고, 신뢰를 주는 정보제공기관으로는 '관련 학회 및 단체' (36.9%)와 '교육기관' (33.8%)을 꼽았다. 영양사의 인터넷 식생활정보 이용경험은 전체의 95.0%였고, 대부분 '1달에 1회 이상' (95.8%) 이용하고 있었으며, '거의 매일' 이용하는 비율도 24.5%로 매우 높았다. 식생활 정보의 검색 목적으로는 80.0%가 '업무를 위해서'라고 하였고, 78.7%가 검색한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식생활 정보에 접속하게 되는 동기는 '검색엔진을 통해서' (42.3%), '친구나 동료의 추천' (36.5%), '관련사이트의 링크를 통해서' (19.1%)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생활 관련 사이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다' (39.1%)와 '업데이트가 느리다' (25.4%)를 들었다. 영양과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원으로는 주로 '인터넷' (63.6%)과 '연수나 보수교육 자료집' (15.9%)을 이용하였고, 영양교육을 위해 '교육자료' (38.6%)와 '최신영양정보' (36.0%)를 필요하다고 하였다. 바람직한 업데이트 기간으로는 과반수 정도가 '1~3개월' (51.8%)이라고 하였고, '1개월 미만'도 30.6%로 높았다. 선호하는 사이트 색상은 '파란색' (37.8%)과 '녹색' (37.8%)과 같은 한색계열을 좋아하였고, 가장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는 '영양사 도우미' (51.1%)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초등학교 영양사의 인터넷 이용률과 식생활 정보 이용률은 높으나 자료가 별로 없다는 것과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점에 불만족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의 개선과 이들의 영양교육 업무에 도움을 줄 사이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